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않겠나이다”
낙태 합법화 대응 위한 생명 존중 행사 열려**



칠레에서 낙태 합법화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행사가 오는 21일 칠레 국회의사당에서 열린다고 에반젤리컬 포커스가 최근 전했다. 국회 명예의 전당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대통령이 여성부의 지지를 받아 낙태 합법화 법안 초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됐다.

첫 번째 행사는 2024년 6월에 개봉한 앤디 마타(Andy Matta) 감독의 영화 아마다(Beloved) 상영이다. 이 영화는 기독교적 가치를 담고 있지만, 단순히 ‘종교 영화’라기보다 인간 생명의 가치를 방어하는 문제에 대해 강렬한 줄거리와 흥미로운 내용을

가진 작품이다.

이후 같은 장소에서 ‘생명 서약(Commitment for Life)’ 문서 서명식이 열릴 예정이다. 이 서약은 여러 정당의 상원 의원 및 하원 의원들이 지지한다. 이를 주도하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공개적으로 밝힌 변호사이자 하원의원인 스테판 슈버트(Stephan Schubert)다.

원래 이 행사는 1월 7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믿기 어려운 이유들로” 막판에 연기됐다. 그러나 조직위원회는 “결국 1월 21일 화요일로 재조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생명 서약은 스테판 슈버트 공화당 하원의원이 주도하며, 여러 단체들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각 의원은 개인 자격으로 이 서약서에 서명한다. 여기에는 공화당, 독립민주연합(UDI), 국민갱신당(National Renewal), 옐로우즈(Yellows), 민주당(Democrats) 등 여러 정당이 폭넓게 참여한다. 서명 이후 이 성명서는 전국의 목회자와 종교 지도자들, 언론에 배포될 예정이다.

3월 25일에는 이 서약의 결과로 ‘생명 지지 의회 모임(Pro-life Parliamentary Caucus)’이 출범할 예정이다. 서명된 성명서는 칠레 전역의 목회자 및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달되고, 언론에도 공개될 예정이다. 이후 3월 25일에는 이 약속을 바탕으로 생명 존중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연합이 출범할 계획이다.

칠레에서 이번과 비슷한 생명을 지지하는 정치적 움직임이 과거에도 한 번 있었다. 2016년과 2017년 사이 낙태와 관련된 정치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으며, 이러한 논의 속에서 초당적 생명 지지 모임이 형성됐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시편 119:101-102)

하나님, 정부의 낙태 합법화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믿음의 증인 한 사람을 통해 생명 존중 행사를 계획하며 하늘의 가치를 따라 진리 편에 선 위정자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태아의 생명이 짓밟히지 않게 하고 정욕에 사로잡힌 이들의 발을 금하여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며 죄악 된 자리를 떠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규례를 따라 행하는 칠레의 교회가 힘써 믿음의 본을 보이고 기도하며 진리를 선포케 하셔서 참된 예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은혜의 땅 되게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美 여권 성별서 'X' 없애…트럼프 '남녀 성별만 인정' 행정명령 적용

미국에서 여권상의 성별을 '남성'과 '여성'으로만 표기할 수 있게 됐다고 연합뉴스가 22일 미 NBC 방송 등을 인용해 전했다. 미 국무부는 여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성별 표기 선택하기'라는 섹션에서 남성(M)과 여성(F) 또는 다른 성별 정체성을 뜻하는 'X'를 택할 수 있게 했었지만, 21일 오전 해당 섹션을 없앴다. 국무부의 해당 조처는 전날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남성과 여성만을 인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한 데 따른 것이다. 이 행정명령은 국무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여권, 비자, 입국 카드를 포함한 정부 발급 신분 확인 서류에 신분증 소지자의 성별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변경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별만 인정하겠다면서 "공적, 그리고 개인적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인종과 성별을 사회화하려고 시도하는 정부의 정책을 끝내겠다. 인종을 불문하고 가치에 기반한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디모데후서 2:15)

하나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별 정체성을 '남성'과 '여성'으로만 표기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려 주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렀던 성 혁명을 바로잡아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일이 다른 나라에도 경종이 되어 어그러지고 사회와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악한 성 혁명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순리에 순복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종으로 쓰임 받게 하시며 미국이 기독교 유산을 회복하여 전 세계에 제사장 나라로 굳게 서게 하소서.

▲ 베트남, 관영 TV채널 10여 개 폐쇄

베트남이 1986년 개혁·개방에 나선 이후 최대 규모의 정부 조직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방송 통폐합으로 베트남에서 2번째로 큰 방송사인 VTC의 13개 채널과 '보이스오브베트남(VOV)' 산하의 VOVTV 등 TV채널이 15일 폐쇄됐다고 연합뉴스가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을 인용해 전했다. 베트남은 현 30개 중앙 정부 부처·기관을 22개로 재편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진행 중에 있으며, 정부 조직과 공무원 규모를 약 20%씩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이들 관영 TV 채널의 기능과 업무는 최대 관영 방송사인 '베트남TV(VTV)'에 모두 이관된다. 이번 개편으로 정부 부처·기관의 비용과 번잡한 절차, 관료주의가 줄어들 수 있지만, 앞으로 국가가 통제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정보 유통 수단이 크게 제한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공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려니와(이사야 32:17-18)

하나님, 베트남의 방송 통폐합의 조치로 여러 TV 채널들이 폐쇄되고 국가 통제하에 미디어와 정보를 제한하려는 이 나라의 상황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며 국가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감찰하여 주십시오. 베트남이 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땅의 통치자들과 백성들을 십자가의 공의 앞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그래서 죄인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선고가 엄중한 무게가 되어 주께로 돌이키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평안과 안전한 거처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슬람 갱단 수사관과 공모 ‘기독교인 450명 기소, 5명은 고문으로 사망’**



최근 몇 년간 파키스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갱단이 신성모독 혐의를 악용해 450명 이상을 부당하게 기소하거나 연루시켰으며, 이 중 5명은 구금 중 고문을 받고 사망했다고 모닝스타뉴스가 전했다. 지난 1월 10일 우스만 워라이치, 이마안 하지르-마자리, 라나 압둘 하미드 변호사는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성모독법을 악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은 연방 수사관들과 공모해 많은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이들은 온라인에 신성모독 내용을 공유한 뒤, 허위로 고발하며 피고발인의 가족들을 상대로 큰 돈을 요구하며 협박했다.

변호사들은 최근 신성모독 사건 증가의 배후에는 이들 갱단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NCHR)의 별도 보고서는 경찰 조사 결과를 지지하며, 연방수사국(FIA) 관리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가운데 무고한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NCHR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피해자는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에 속한다.

아디알라 지역 교도소에는 신성모독 혐의로 150명 이상이 수감돼 있고, 라호르의 지역 캠프 교도소와 코트 라크파트 교도소에는 170명, 카라치 중앙 교도소에는 55명이 수감돼 있다. 갱단은 젊은 남녀를 고용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람들과 친분을 쌓은 뒤 이슬라마바드 G-8 섹터에 있는 안전가옥으로 유인했다.

와라이치 변호사는 “이 갱단에 속은 젊은 피해자들이 그 집으로 유인된 이후 옷이 벗겨진 채 고문당했으며, 갱단은 이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했다”고 밝혔다. 갱단은 전국에서 20명 이상의 젊은이를 함정에 빠뜨렸다. 갱단의 고문으로 인해 22세 여성 파티마 자항기르(Fatima Jahangir)를 포함한 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법정 내 협박과 지역사회의 선동 법정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은 피해자 가족을 괴롭히고 판사를 압박하기 위해 구호를 외치는 등 협박을 가하며, 판결 이후에는 피해자의 지역사회의 모스크에서 그들을 겨냥한 성명을 발표해 지역 주민들을 선동한다고 와라이치 변호사는 설명했다.

변호사들과 피해자 가족들은 이러한 우려를 여러 정부 기관에 제기했다. 대통령실, 총리실, 대법원장, 내각부, FIA 총국장, 인권부, 내무부, 법무부, 주요 정당 지도부에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들은 정부에 경찰과 NCHR 보고서를 바탕으로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며,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소송을 중단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잠언 16:5-6)

하나님, 신성모독법을 악용해 기독교인들을 함정에 빠뜨리며 괴롭힘을 선동하여 불의한 재물을 취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을 주께 고합니다. 피해 가족들이 여러 통로로 정부 기관에 호소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위정자들의 무정하고 완고한 심령을 꾸짖어 주시고 십자가 공의의 빛을 비취주소서.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을 벗을 수 있도록 주의 인자와 진리로 모든 영혼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파키스탄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악이 떠나가고 진리의 깃발을 높이 세워주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태국, 23일부터 결혼평등법 발효...동성결혼 허용

태국이 23일부터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한다고 연합뉴스가 AP통신 등을 인용해 전했다.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결혼평등법이 이날부터 발효된다. 태국 정부는 23일부터 전국 행정 사무소와 해외 태국 대사관 영사관에서 엘지비티(LGBTQ) 커플 혼인신고를 받는다. 한편 방콕시와 엘지비티 단체 방콕프라이드는 23일 방콕 시내 대형 쇼핑몰 시암파라곤에서 대규모 '결혼 평등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동성 간 결혼 합법화 첫날을 기념해 대규모 결혼 등록이 이뤄진다. 주최 측은 300여 쌍이 사전 참가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동남아시아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는 태국이 처음이다. 아시아에서는 대만, 네팔에 이어 세 번째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사도행전 17:30-31)

하나님, 결국 태국이 결혼평등법을 시행하여 엘지비티 커플의 혼인신고가 가능하고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게 된 소식에 애 통하며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오랜 선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불모지와 같이 말씀이 뿌리내리기 어려운 이 땅에 '회개하라' 명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성적인 타락과 죄악이 관영하여 정부와 법체계마저 사탄의 도구로 전락해 어둠이 득세하는 것 같은 이 땅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심을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신 십자가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사 심판을 이기신 구원이 태국에 임하게 하옵소서.

▲ 세르비아, 두 달 넘게 반정부 시위 지속

세르비아에서 노비사드 기차역 콘크리트 지붕 붕괴 참사 이후 두 달 넘게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뉴시스가 AP통신 등을 인용해 전했다. 지난 17일, 대학생이 주도한 수만 명의 시위대가 수도 베오그라드에 있는 국영방송사 RTS 건물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시위대와 야당은 RTS가 알렉산다르 부치치 대통령의 정부가 시키는 대로 편파 보도를 해왔으며 방송국에 대해서도 분노를 표출해서 시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일 노비사드의 기차역에서 콘크리트로 된 길이 35m 야외 지붕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그 아래에 있던 시민들을 덮쳐 15명이 사망하고 2명이 사지 절단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세르비아 국민은 큰 충격과 분노로 시위에 나서, 부실 보수공사의 원인으로 정계의 부정부패, 직무 태만, 족벌주의를 지목했으며, 정부는 보수공사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강경 시위진압에 나섰다.

통치자들이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이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그 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값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시편 58:1,11)

하나님,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기차역 참사 이후 책임을 회피하며 시위대에 강경 진압의 태도를 보이는 정부와 편파 보도로 이를 축소·왜곡한 어지러운 세르비아를 의탁 드립니다. 통치자들의 부패한 심령을 꾸짖으사 돌이켜 정의를 말하게 하시고,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언론인들의 어그러진 마음을 갈아엎어 주소서. 이 땅 백성들에게 죄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시는 심판주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명목상 신자가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그래서 세르비아의 진정한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리심과 구원을 사모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날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양 떼 같이 구원하시리니”
조셉 아운 대통령 당선...청렴한 지도자 선출로 희망과 변화 기대



2년 넘게 공석 상태였던 레바논의 대통령으로 조셉 아운(Joseph Aoun) 군사령관이 지난 9일 선출되면서 국민들이 이를 축하하며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온라인 선교매체 미션네트워크가 최근 전했다. 그의 선출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휴전 협정 이후, 헤즈볼라의 약화된 정치적 영향력을 반영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아운 후보는 미국,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지를 받았으며, 헤즈볼라가 권력을 유지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128석의 의회에서 99표를 얻어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아운은 정치적 중립성과 청렴성으로 이미 레바논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많은 이들로부터 현재 역사상 가장 청렴한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레바논은 지난 2년 넘게 대통령이 없는 상태로 운영됐다. 이전 대통령은 헤즈볼라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인물로, 국민들 사이에서 꼭두각시 지도자로 여겨졌다. 아운의 당선은 레바논 정치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레바논은 종교적 균형을 보장하는 독특한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항상 마론파 기독교인이 맡고, 총리는 수니파 무슬림, 의회 의장은 시아파가 맡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이슬람권 선교단체 호라이즌스 인터내셔널(Horizons International)의 피에르 후스니(Pierre Housney) 대표는 “대통령 공백은 정부를 이끄는 기독교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아운의 당선은 이 균형을 회복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아운 당선인은 레바논 군대가 군사력을 독점하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헤즈볼라의 남은 군사력을 회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아사드 정권의 몰락과 이란으로부터의 무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헤즈볼라의 군사적 힘이 약화된 상황과 맞물려 있다.

아운의 당선 이후, 레바논 국민들은 민족적·종교적 경계를 넘어 새로운 희망을 느끼고 있다. 후스니는 “희망이 전혀 없이 높으며, 억압이 풀린 듯한 기쁨이 크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현재의 상황이 교회와 비신자 공동체 간의 연결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후스니는 “우리의 꿈을 넘어서는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문이 계속 열려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 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와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스기랴 9:16-17)

하나님, 불안정한 정권과 2년간 대통령의 부재로 인해 암울했던 레바논에 헤즈볼라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작은 희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백성을 양 떼와 같이 구원하실 주님의 주권 아래 조셉 아운 대통령이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그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진리를 따라 백성들을 옳은 데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이때 레바논에 믿음의 증인들이 일어나 주의 형통하심과 아름다움이 흘러가는 통로 되게 하셔서 종교적 균형이 아닌 구원의 창시자이신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어나게 하소서.

▲ 필리핀, 군 기지 정찰한 중국인 간첩 체포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대립 중인 필리핀에서 군 기지 등을 정찰해 온 중국인 간첩이 체포됐다고 연합뉴스가 AFP 통신을 인용해 21일 전했다. 전날 필리핀 국가수사청(NBI)은 중국 소프트웨어 기술자 덩위안칭과 그의 필리핀인 운전사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필리핀 내 군사 시설을 비롯해 주요 인프라를 정찰, 관련 데이터를 중국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수사청은 덩의 차량에서 표적 시설의 3차원(3D)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기기 등 스파이 장비를 발견했고 이들이 군 기지, 지방정부 사무실, 발전소, 경찰 시설, 기차역, 쇼핑몰 등 주요 인프라를 자주 방문했다고 전했다. 국가수사청은 덩이 소속된 조직을 추적 중이며, 그 구성원 중에는 여러 명의 하드웨어 기술자와 재무 담당자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나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잠언 14:22,25)

하나님, 필리핀의 군 기지와 정부 시설 등을 정찰하며 정보를 수집한 중국인 간첩의 배후 세력을 속히 밝혀 주십시오. 또한,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을 무시하며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겸손히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게 하소서. 필리핀과 중국에 선이 무엇인지 주의 인자와 진리로 가르쳐 주셔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은혜를 주옵소서. 두 나라의 증인 된 교회를 통해 영혼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 나이지리아, 유조차 폭발로 86명 사망

나이지리아에서 유조차가 폭발해 86명 숨졌다고 연합뉴스가 알자지라 방송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국가재난관리청 등에 따르면 18일 오전 9시께 나이저 주 솔레자 지역에서 유조차가 옆으로 넘어졌고 넘어진 유조차에서 다른 유조차로 연료를 옮기는 과정 중 차량이 폭발했으며, 인근 주민들이 연료를 퍼내기 위해 몰려 인명 피해가 컸다. 부상자 중 중태인 사람도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이자 세계 8위 원유 수출국이나 정유시설이 부족해 석유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2023년 상반기 연료 보조금을 철폐하며 휘발유 가격이 급등해 연료난이 이어지고 있으며 작년 10월에도 북부 지가와 주에서 유조차가 전복되며 폭발해 147명이 사망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시편 23:4)

하나님,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이지만 정유시설 부족으로 연료난을 겪고 있는 나이지리아에 유조차가 폭발해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다스려 주소서. 부상이 중하여 생명이 위태로운 자들을 지켜주시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영혼의 가장 시급한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영혼의 해를 당하지 않는 증인들을 이 땅에 두셨사오니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예수 생명이 더욱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들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항상 지켜주시고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